

트럼프 2기 파고 넘는다! 수산 수출 대작전

- 해양수산물부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 발표」, 31.5억 불 수출 목표
- 비관세장벽 플랫폼 구축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대응 체계 구축
- 굴·전복 등 차세대 유망상품 적극 육성, 미주·유럽·중동 등 수출국 다변화 병행

해양수산물부(장관 강도형)는 2월 18일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치인 31.5억 불 달성과 천만 불 수출기업 70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 및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략 ① 미국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식품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과의 교역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우선 △수출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우수수산물지원, 1,489억 원, 전년대비 165억 원↑)을 통한 기업 유동성 부담 최소화,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 * 공동물류센터 지원한도 : 해외 4천만 원(전년비 1천만 원↑), 국내 6천만 원(4천만 원↑)
해외공동물류센터 현지거점 : 76개소(뉴저지, 뉴욕, LA 등/전년대비 4개소↑)

아울러, 수출 규제 전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신규로 개설한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양포유류 보호법(MMPA)」 및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여,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수산식품 수출 이력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보험* 및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환율 변동과 무역 분쟁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들의 무역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한다.

- * (비관세장벽 플랫폼)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장벽 관련 최신 정보 및 주요국 식품 안전기준 통합 조회, 과거 비관세 관련 제도 변경 아카이브 제공
- ** (리스크안전망 구축 사업) 수산식품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환율변동 보험 등 위험 관리 활동(보험료 90~100%) 및 관련 교육 지원

[전략 ② 굴·전복 등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수출 1위 전략품목인 김은 생산·가공·수출 전(全) 주기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안정적 생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 △마른김 등급제 도입 및 △국제 김 거래소 설립 추진, △K-GIM 브랜드 확산 등을 추진한다.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횡감용 필렛 및 프리미엄 가공 참치 개발,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 * 김 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24.10)

또한, 굴 등 차세대 유망품목으로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유럽·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훈제 굴, 굴 감바스 등 가공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략 ③ 스마트 가공단지·수출클러스터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남 해조류 특화 수출단지와 부산 R&D 특화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가공종합단지’도 전북과 경북에 각각 구축하여 권역별 산업 집적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스마트 가공공장 및 자동화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수출 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힘을 계획이다. 특히, IoT·AI 기반 스마트 가공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수산식품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브랜드 무단 전점·도용 등 지재권 피해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산식품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세계 김 시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K-GIM’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하고, 굴, 전복 등 유망한 수산식품은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상훈 (044-200-5480)
	수출가공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미 (044-200-548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 고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

I. 수산식품 수출 실적 및 시사점

□ 3년 연속 수출 30억 불, 일본·미국·유럽 수출 증가세 지속

- (현황) 김 글로벌 수요 지속 및 참치 생산 증대로 수산식품 수출 30.3억 불 달성(전년대비 0.9% ↑), 김은 9.97억불 달성
 - * 수산식품 수출액(억불) : ('20) 23.1 → ('21) 28.3 → ('22) 31.5 → ('23) 30.0 → ('24) 30.3
 - 김(9.97억불, 25.8% ↑) 수출 1.3조원 달성, 참치(5.9억불, 4.7% ↑) 수출 증가로 고등어(9천만불, 20.3% ↓), 굴(8천만불, 11.0% ↓) 등 감소 만회
 - * 수출 10위 품목('24): 김>참치>고등어>삼치>굴>오징어>게>이빨고기>전복>넙치
- (평가) 김은 견고한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 품목은 日 국내 생산 회복·넙치, 단가 하락·전복 등으로 감소

⇒ 주력품목(김·참치) 수출 기반 공고히 하고, 차세대 유망품목(굴·전복·어묵 등) 육성

□ (국가별) 일본, 미국, 유럽 등 수출실적 증가 및 수출국 다변화

- (현황) 김을 중심으로 일본은 수출액 6.6억불(전년대비 3.4% ↑), 미국은 4.8억불(11.7% ↑), 유럽은 2.3억불(16.4% ↑) 기록
 - * 일본(6.6억불) > 중국(5.3억불) > 미국(4.8억불) > 태국(2.6억불) > 베트남(2.2억불)
 - 중국*은 자국내 경기 침체 및 러시아산 수입재수출** 감소 등으로 5.3억불(전년대비 18.3% ↓) 기록하며 감소세 지속
 - * 對중 수산물 수출액(억불) : ('19) 5.2 → ('20) 4.4 → ('21) 7.3 → ('22) 9.0 → ('23) 6.4 → ('24) 5.3
 - ** 수산물 재수출액(억불) : ('19) 3.4 → ('20) 2.9 → ('21) 5.3 → ('22) 8.2 → ('23) 4.6 → ('24) 3.4 (코로나19 이후 中의 러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재수출(러→韓→中) 증가)
 - 日·中·美 등 주요국 수출 비중*은 55.9%(전년보다 1.2%p ↓)로 수산식품 수출국 다변화 및 시장 확대 경향 지속
 - * 일중미 수출 의존도(%): ('19) 61.9 → ('20) 61.4 → ('21) 62.2 → ('22) 62.0 → ('23) 57.1 → ('24) 55.9
- (평가) 러시아(44.3% ↑), 프랑스(22.4% ↑), 캐나다(10.3% ↑) 등 수출액 비중은 적으나 성장세가 큰 국가에서의 수출 잠재력 확인

⇒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산업 성장기회 창출 및 무역리스크 분산 필요

II.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여건 및 전망

□ 美 신정부(1.20~)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 (여건) 美 신정부 통상정책 및 세계 경제 성장의 보합세*, 환율 변동(엔저 효과 등) 및 국제분쟁(러-우 전쟁) 지속 등 불확실성 증대
 - * 세계 경제 성장률(%), IMF : ('24) 3.2 → ('25 예상) 3.2
-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의 내수 경기 회복, 신흥시장인 유럽의 통화긴축 완화에 따른 해외 수산물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 美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및 중국의 부동산 침체 및 소비 둔화 지속 등에 따른 위협 요인 상존
- (전망) 美 고율 관세 부과, 해양생물 보호 및 식품 이력 관리 등 비관세장벽* 강화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전망
 - * (美, '26.1~)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근거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시행,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근거한 식품 이력정보 보관 의무화 조치 시행 예정
- 또한, 對미 러시아산(러-우 전쟁) 및 對중 일본산(후쿠시마) 수산물이 본격 진출할 경우 우리 수산물과의 경쟁 격화도 예상

□ 수산업 환경 및 기후변화·생산 여건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수산업 환경 변화) 수산업·어촌 고령화 및 정주여건 낙후 등 생산기반 위축으로 인한 수산식품 수출 여건 악화 가능성 상존
 - * 어가 고령화율 : ('20) 36.0% → ('21) 40.5% → ('27) 47.5%
- (생산 여건 변화) 기후변화 등으로 김 가격 및 생산량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수출 물량 예측과 재고 확보 어려움
 - * 물김 산지가격(원/kg): ('24.10) 3,900 → ('24.11) 4,002 → ('24.12) 2,254 → ('25.1) 777
마른김 도매가격(원/100장): ('24.10) 10,780 → ('24.11) 10,970 → ('24.12) 11,535 → ('25.1) 11,800
- (지식재산권 침해) 조미김, 어묵 등 가공품 수출 비중 증가에 따라 상표 무단 선점·도용 등 지적권 침해 가능성도 증가
 - * 중국, 동남아 등 해외지역에서 조리김, 게맛살 등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피해 사례 다수 발생

〈 국가별 수출전략 및 품목별 당면과제 〉

□ '25년도 주요 품목별 당면과제

김	원료 가격 안정 및 원활한 재고 확보 대응	참치	부가가치 향상 및 국제인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김수요 확대, 물김 생산부족에 따른 가격 ↑, 재고 ↓로 공급부족 방지 필요 ◦ 세계 김 시장에서 K-김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생산업체 소득안정, 물류 효율화 ⇒ 마른김 등급제 및 국제 마른김 거래소 도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치 생산 보합세 및 횡감용생산 감소 전망에 따라 고부가가치화 필요 ◦ 중국·EU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발굴 및 판로 확대 ⇒ 일본·EU 등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확대
굴	유럽 시장 진출 및 가공제품 개발	전복	일본·아세안 중심 마케팅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등 최종소비까지 장기간 소요에 따라 생굴 선도 유지부담·폐사로 선호 감소 ◦ 프리미엄 건조 굴, 굴 스프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하여 유럽, 아세안 시장 공략 필요 ⇒ 프리미엄 건조·가공품 시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의 경우 수출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출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감소 * 수출량 : ('23.12) 2,666 → ('24.12) 2,786톤(4.5% ↑) ** 수출단가 : ('23.12) 20.4 → ('24.12) 18.2\$/kg(10.7% ↓) ◦ 일본·베트남 등 외식·관광 전복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현지 유통사 연계 시장 확대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일본·아세안 중심 판로 개척

□ '25년도 주요 국가별 수출확대 전략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장벽 확대 대응	유럽	굴 중심 윤리·친환경 시장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수산식품 수출 3위국(약 4.3억 불) ◦ 中·EU 등 고율 관세 부과 정책 추진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 해양포유류 보호(MMPA), 식품추적·이력 강화(FSMA, SIMP) 등 수입관리 강화 ⇒ 비관세장벽 강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산식품 수출국 우위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수산식품 잠재시장(2.3억불)으로 참치, 김 위주로 수출 ◦ 비건·건강식,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으로 국산 해조류·패류 수출가능성 확대 ◦ 식품위생·안전 규정 강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산식품 진출 확대 필요 ⇒ 굴 가공식품 현지화 및 MSC 등 지속가능인증 취득을 통한 시장확대 필요
중국	비관세장벽 완화 및 수입재수출 기회	일본	최대 소비시장, 경기회복 기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 2위국으로서, 김, 참치, 삼치 등이 주요 수출 품목 ◦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입재수출 기회, 정부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 회복 기대 ⇒ 수입산 및 원양산 등 활용한 중국 시장 타겟 수산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수입재수출 감소분 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김 생산의 평년 수준 회복 전망에 따라 한국산 김 수출 보합세 전망 ◦ 경기 회복에 따른 참치, 전복 등 외식 중심 소비 개선 기대 ◦ 수산식품 수출보험·보증 지원을 통하여 엔화 변동 피해 예방 및 업계보호 필요 ⇒ 판로 확대와 함께 수출 가격 제고를 위한 김 등급제 도입 및 품질 위생 관리 강화 필요

Ⅲ. 비전 및 추진 방향

비전

2025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목표

	'24년 실적	'25년 목표
전체 블루푸드 수출액	30.3억 불	31.5억 불
* 수출액(억불) : ('20) 23.1 → ('21) 28.3 → ('22) 31.5 → ('23) 30.0 → ('24) 30.3		
천만불 수출기업	62개사	70개사
* 천만불 수출기업(개사) : ('20) 41 → ('21) 55 → ('22) 62 → ('23) 59 → ('24) 62		

추진 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내용
1. 美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1-1. 보편관세 및 환율변동 영향 대응
	1-2.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구축
	1-3. 무역리스크 대비 경영안전망 구축
2.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2-1. 수출 주력품목 주도권 강화
	2-2. 차세대 수출품목 고차가공 및 유망상품화
	2-3. K-블루푸드 브랜드파워 확산
3. 지속가능한 수출을 위한 수산업 기반 강화	3-1. 블루푸드테크·고차가공 기술 변화 대응
	3-2. 수출클러스터 등 산업 기반 활성화
	3-3. 해외시장 지식재산권 보호

Ⅳ. 추진전략별 세부 실천 과제

1 美 관세·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 ◆ (현황) 對미 수산물 수출액은 연 4억불 이상으로 성장세('23년 14.3%→'24년 15.8%)
* 주요 품목('24년): 김(44.6%), 이빨고기(12.6%), 굴(5.3%), 넙치(4.1%), 오징어(3.9%) 등
- ◆ (관세 영향) 일부 김·오징어·굴 등 중국산과의 경쟁 품목은 가격경쟁력 상승 기대
* 현재 美 관세 부과국 진출 현황은 중국 1개 중견기업(대미수출無), 멕시코 1개 신생기업(25.6 개소) 등

① 보편관세 및 환율변동 영향 대응

- (유동성 지원) 정책자금 용자를 통해 美 보편관세 및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 유동성 악화 위험 최소화
* 우수수산물: 1,489억원(전년보다 165억원↑)/고정(2.5~3.0%) 또는 변동/업체당 50억
** 가공시설 및 운영: 195억원/ 고정(2.5~3.0%) 또는 변동/ 업체당 7억원
- (물류 지원) 관세·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국 다변화 시, 예상되는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보관 지원* 및 현지 물류거점** 확보 추진
* 美 주요 수출 활수산물(넙치, 전복 등)의 국내 공항항만 인근 수조 임차비 80%
** ('24) 19개국 72개소 물류센터 → ('25) 20개국 76개소(뉴저지, 뉴욕, LA 등)
*** 해외공동물류센터 : ('25) 23억원/ 지원한도 4천만원(전년보다 1천만원↑)
국내공동물류센터 : ('25) 5억원/지원한도 6천만원(전년보다 4천만원↑)

② 주요 수출국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구축

- (지원 허브) 수출 규제 전담 비관세 대응센터* 운영('24.5~) 및 「비관세장벽 플랫폼」** 개설('25.5)
* (구성) KMI 전문연구진 및 관세·통관, 기술기준·수입규제 등 산·학·연 네트워크
** (기능)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장벽 관련 최신 정보 및 주요국 식품 안전기준 통합 조회, 과거 비관세 관련 제도 변경 아카이브 제공
- (美 수입규제 대응)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등 대응체계^{해양포유류 보호}(MMPA) 및 「대미 수산식품 수출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FSMA·SIMP)^{위생안전 불법어업}** 구축
* (해양포유류 보호) 멸치넙치 등 수출 가능 품목의 경우 증명서 첨부 전제로 수출 가능
** (위생안전·불법어업) 생산·유통 이력 정보를 수출입업체에 보관(2년)·제출 의무화

3 무역리스크에 대한 경영안전망 구축

- (보험료 지원) 환차손·미수금 발생 등 무역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수출보험 가입 지원*(업체당 최대 6천만원) 확대 추진
 - * 리스크안전망 구축 사업: ('25)825백만원 / 수출보험(3종) 가입비 90~100% / 미수금(단기 수출보험), 환차손(환변동보험), 신용보증(수출신용보증)
 - ** 지원업체(개사) : ('25) 75개사 지원 목표(전년대비 14개사 ↑)
- 수출업계 위험관리 활동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지속 전파
 - * 찾아가는 교육(연 3회) 및 집합교육 실시, 유튜브, 대량메일링 서비스 등
- (리스크 대응력 강화-①개별 기업) 기업 단계별*로 취약점 보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천만불 강소기업 70개社 육성(現 62개사)
 - * (초보) 0.5억원 한도/ 3년 → (성장) 1억원 한도/ 3년 → (고도화) 2.2억원 한도/ 5년
 - ** 19종 수출지원 항목(통관비, 유망상품 개발, 국제인증 취득, 라벨링, 상표권 등록, 현지 마케팅 등) 중 기업 필요에 따라 자율로 선택하여 활용
 - *** 수출바우처 지원: ('24)62개사/77억원→('25)100개사/116억원(전년대비 39.4억원 ↑)
- 특히 리스크 대응 역량이 부족한 초보기업의 수출성장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지원 기준* 완화
 - * (초보) 3년 평균 수출액 1~50만불 및 전년 매출액 5억원 이상(전년기준 10억원)
- (리스크 대응력 강화-②업종별 조직) 품목별 업체가 조직화*된 경우에는 '선도조직 사업*'을 통해 업·단체별 수출 기반 마련
 - * ①조미김(한국조미김, 해조류수출연합회), ②굴(굴선도조직협의회), ③전복(한국전복수출협회, 지속가능한전복산업협동조합), ④넙치(더건강한광어수출협의회) 등
 - ** 선도조직 육성 : ('25년 예산) 12억원 / 생산-가공-수출기업이 연계된 자율협의체 조직에 대해 시장개척, 품질관리, 마케팅 등 지원('24년 8개 조직 지원)
- 특히,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조미김, 굴, 넙치, 어묵 등에 대해서는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
 - * (전략품목) 김, 굴, 전복, 어묵, 넙치 등(전체 수산식품 수출의 1% 이상 비중)
 - ** (지원내용) 업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운영관리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등

2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 김·참치의 주도권 강화와 굴·전복 등 차세대 수출품목 육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남미·유럽 등 유망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1 수출 주력품목 주도권 강화: 김(세계시장 70% 점유), 참치(수출 2위 품목)

- (김) 생산-가공-수출 전(全) 주기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원가 변동 및 재고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업계 영향 최소화
 - * 김 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24.10)
-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24~'26), '마른김 등급제*' 도입('24~'27), 물김 품질 향상 관리**를 통한 고품질 김 생산 추진
 - * 「AI 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실증」(R&D, '24~'26)
 - ** 「마른김 중금속 저감 장치 기술개발」 추진(R&D, '26~'30)
- 유통 구조 개선 및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른김 거래소' 운영 기준 마련*, 'K-GIM' 명칭 확산**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
 - * 현재 공통화된 거래소 운영방식·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24년 서천, '25년 고흥), 거래 절차 및 입찰방식 등 표준화 필요
 - ** 해외시장에서 김의 명칭이 주로 Nori, Seaweed, Laver 등으로 사용
- (참치) 고부가가치화 전략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수출형태를 원물 위주에서 냉동필렛 등 가공품으로 지속 확대
 - * 참치 수출액 중 필렛 비율 : ('23) 42.0% → ('24) 45.7% → ('25) 50% 목표
 - ** ('25년 생산 전망) 가다랑어(통조림 등) 생산 포함세 및 눈다랑어(화·초밥용) 대서양 쿼터 축소('24, 1,337톤→'25, 1,100)에 따라 고부가가치화 절실
- EU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발굴 및 판로 확대 추진, 눈다랑어 등 헛감용 참치의 고급화* 전략 등 부가가치 향상
 - * 프랑스(51백만불), 이탈리아(37백만불) 등 참치 주요 수출국가 대상 "참치 카르파초, 타르타르, 세비체" 등 가공품 키트 및 레시피 개발·홍보
- 선진국 선호도가 높은 MSC 등 지속가능 국제인증 취득 대상 (수출전략인증) 및 지원 한도* 확대
 - * 국제인증 취득지원(억원) : ('24) 22.4(업체당 7천만원) → ('25) 26.3(업체당 1억원)

② 차세대 수출품목(굴·전복·넙치·어묵 등) 고차가공 및 유망상품화

원물(신선·활수산물) 중심	고차가공품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 유지 어려움 → 중국·일본 등 아시아 근거리 수출 ■ 1차 산업 성장 기여 * (예시) 물김 8,100원/100장 생굴 7,000원/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유통 이송 용이 → 남미·중동·유럽 등 장거리 국가 다변화 ■ 1차 산업+2차·3차 산업 동반성장 기여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가격 상승) * 마른김 11,535원/100장, 조미김 58,500원/100장 훈제굴 19,577원/kg, 건조굴 40,000원/kg

- (가공 등 고부가가치화) 굴*(훈제, 굴 감바스 등), 넙치(간편 넙치회), 전복(손질전복) 등 품목별 고차가공 기술 개발**, 설비 고도화*** 지원
 - * 세계 굴 1위 수출국 도약을 위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수립('25.2, 관계부처 합동)
 - **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 : 수산가공업체에 신제품 개발 및 상품 개선 등 지원 ('25년 예산 : 12억원 / 개별 업체당 최대 연 1억, 최대 2년 지원)
 - *** 가공설비 지원 : 가공·포장 및 이물·금속 검출 등 설비 지원('25년, 21억원)
- (유망상품 개발) 상품화 단계별(스타트업-스케일업-스타상품)로 ①메뉴 개발→②시제품 생산→③인증·등록·검사→④통관 등 지원
 - * 수출유망상품화 지원 사업 : 수출상품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최대 6년 지원 ('25년 예산 : 22억원(전년보다 6억원 ↑)/총 31개사 지원/업체당 2.5억)
 - 유망상품의 EU·중동·ASEAN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할랄 등 국제인증 취득 지원대상 및 한도(7천만원→1억원) 확대
 - * 국제인증 : ('25) 26.28억원(전년보다 4억원 ↑) / 국비80% 지원
 - ** '할랄인증', '지속가능한 수산물' 취득 추가 지원으로 총 48종 인증 지원
- (현지 유통망 진출) 프랑스 등 유럽 내 대형 유통업체* 및 세프 대상 홍보행사 개최, 박람회·상담회 초청 등 마케팅 추진
 - * 현지 대형 냉동·냉장 식품체인(Picard, Carrefour 등) 판촉 지원
 - ** 주요 업계 관계자 초청 B2B 매칭, 온오프라인 홍보('25년 예산: 8억원/8개국 9회)
- (안정적 공급) 국내·외 활수산물 냉장·콜드체인 운송망 확대*, 부가가치 높은 개체굴** 생산 체계 전환 및 식품안전성*** 홍보
 - * 물류센터 창고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풀필먼트(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포장, 배송, 반품 관리 등 물류 서비스) 등 구축비 지원('25년, 28억원)

수출 준비	해외 운송	현지 운송	현지 운송
수출물류센터	해운·항공	공동물류센터	콜드체인, 풀필먼트

 - ** "개체"생굴(15천원/kg)은 "일반"생굴(7천원/kg)보다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평가
 - *** 미국 FDA의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산 굴과 달리 한국산 굴은 FDA의 인증받은

③ K-블루푸드 브랜드파워 확산

- (브랜드화 기반 구축) 美아마존, 中타오바오 등과 연계한 라이브 쇼핑, 인플루언서 콘텐츠 협업 및 K-씨푸드 온라인관 추진
 - * K씨푸드관 입점/컨텐츠 지원: ('25)220개사/475건(전년대비 20개사, 25건 ↑)
 - 특히, 유럽 등 유망시장 진출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지 조사* 및 K-씨푸드 앵커숍** 통한 마켓테스트 지원
 - * 시장조사 : ('25) 2억원 / 12개사 60건(업체당 보고서 최대 5건 제공)
 - ** 앵커숍 : 수출국가 현지에 설치하는 우리 수산식품 홍보·판매 마켓으로 '수산 식품의 해외 진출 및 정착을 위해 닦을 내린다'는 의미 ('25년 예산) 10억원 / ('25) 전체 25개소(전년대비 3개소 ↑)
- (K-브랜드 협업) 국제박람회* 내 한국 수산식품관 운영 확대, 부처 합동 K-박람회** (캐나다, 스페인, UAE) 및 K-컨텐츠 연계 홍보 지원
 - * 국제박람회 내 수산식품관 운영 등 : ('25) 51억원(전년보다 12억원 ↑)
 - ** 한류 K-박람회 및 K-컨텐츠 연계 홍보 등 : ('25) 31억원(전년보다 7억원 ↑)
 - 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K-컬처 국내행사와 협업하여 밀착 홍보* 신규 추진하고, K-컨텐츠 연계 홍보 지원
 - * K-씨푸드 '인바운드 마케팅' : ('25) 8억원(신규)
- (무역지원센터) 남미·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 무역지원센터(수협)* 개편을 통해 무역상담회** 등 현지밀착 지원 내실화
 - * (8개국 11개소) 중화권(상해·청도·홍콩·대만), 미국(LA, 뉴저지), 일본(도쿄), 동남아(방콕·호치민·자카르타), 유럽(파리, '24.11월 개소) ⇒ 남미·중동 중심 개편
 - ** ('25) 16억원/ 무역지원센터 미소재국 상담회 3회 및 신규 도시 4회 개최
 - BI(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해외 지사화 사업, 재외공관 협업 등 현지 지원 확대, 바이어 후속지원 내실화
 - * MOU 체결 유망 바이어에 대해 한국 업체 방문 등 비즈니스 지원 확대하고, 계약 체결 바이어에 대해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등 지원

3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수출산업 기반 강화

◇ 스마트화 및 IoT 등 미래 기술 변화, 여가인구 고령화 및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산업 기반 유지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1 블루푸드테크·고차가공 기술 변화 대응

- (스마트공장) 노후 가공설비 현대화 및 영세·중소업체의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공장비·시설 스마트화** 추진
 - * 수산물가공업은 '23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소상공인(10인 미만)의 비중이 66.5%
 - ** 스마트공장: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공장 운영의 모든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
 - 부처협업을 통해 **중기부자동화장비·센서 등 스마트공장 구축 및 해수부 관로개척·품질인증·컨설팅** 지원('25년 15개사, 30억원, **신규**)
- (미래 식품) 미국·EU 등 선진국 식품시장의 **비건·친환경** 등 트렌드에 따라 수산물 활용 **대체육·배양육** 개발 본격 추진
 - * 「해조류 활용 대체수산식품 및 수산물 세포배양식품 기술 개발」('24~'28, 286억원)
 - ** 대체해조육 6종(면, 회, 어묵, 초밥 등), 수산배양육 3종(초밥, 덮밥, 캐비어)
 - 특히 고령푸드·메디푸드·팻푸드 등 **기능성식품**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 * 「수산식품 스마트 가공 기술개발」('21~'25, 총 121억원)



2 수출클러스터 등 수산식품 수출산업 기반 활성화

- (수출단지) 대규모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산업의 집적화 및 생산·유통 효율성 제고 등 **규모의 경제 실현**
 - **전남** 해조류 특화 수출단지를 조성, **고품질 김 생산 및 시장 확대 기반 구축** 등 수출산업 경쟁력 확보('20~'26, 1,137억원)
 - **부산** R&D 특화 수출단지를 조성, **원양산 및 수입산 수산식품의 고차가공 식품**에 대한 기술 기반 마련('22~'28, 813억원)
 - * 수입산 킹크랩·대구(러시아산) 및 원양산 참치 등 활용한 중국 시장 타겟 수산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對중국 수입재수출 감소분 만회**

- (가공종합단지) **전북** 새우·메기 등, **경북** 붉은대게 등 산지 특산물 맞춤형 스마트가공단지 조성을 통해 **품목별 수출경쟁력 확보**
 - * (전북 군산) '22~'26년, 433억원 / 착공 및 공정관리('25.上~)
 - * (경북 영덕) '23~'26년, 380억원 / 기본·실시설계('24.12~'25.말)
- **IoT·AI 활용** 식품위생(HACCP)·연구개발(R&D)·물류 효율화 시설 및 테스트베드 환경 등 **공유 기반 인프라** 시설 구축
- (가공설비 현대화) 김 등 **주력 수출품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가공 기술 **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절감시설(마른김)***** 지원
 - * (마른김 가공능력) 현재 연간 약 1억 8천만속 가능하나, 안정적 김 수출물량 소화를 위해 2억만속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능력 향상 필요
 - ** 가공설비 지원 21억원 / *** 마른김 품질위생 개선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7억원

3 수산식품 수출기업 브랜드 가치 보호

◆ 수산식품 지식재산권 무단 선점 사례
- 우리나라 조미김·어묵 등 가공품 관련 모방상표가 중국·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고, 판매 중단 및 리콜 등 피해를 입는 사례 다수 발생



<원>인니 상표, <오>한국 상표

- (지재권) 기업 브랜드 무단 선점·도용 등 지재권 피해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간 **지속적 협업체계**** 구축
 - * (중앙부처) 해수부·특허청 / (산하기관) 수협·KMI·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업무협약('25.1분기) → 업계 교육·홍보 → 현지 단속 → 기업 피해 협업 대응
-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지재권 관련 분쟁 대응에 **한계**, 정부 주도 **피해 예방 및 지원** 필요
 - * 기업 규모별 수출업체('24) : **중소 94.9%**, 중견 2.5%, 대기업 1.4%, 기타 1.2%
- (통합브랜드) 수출 국가통합브랜드 **K-FISH**의 해외 현지 마케팅(팝업스토어 15개국) 등 통해 **글로벌 인지도 확대**
 - 잠재력 높은 수산식품 발굴하여 **브랜드 승인*** 및 해외 공동 마케팅, 통관문제 해소, 시장진출 지원으로 수출 촉진
 - * K-FISH 승인(개) : ('19) 172 → ('21) 244 → ('23) 336 → ('24) 350 → ('25°) 386
 - ** **수출액 중 K-FISH 비중(%)** : ('19) 6.9 → ('21) 11.8 → ('23) 17.5 → ('24) 19.9